중국조선족의 사회구조 변화

나형욱

[요약]
이 글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인한 중국 조선족사회구조의 변화를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분석하였다. 중국의 소수민족문제는 중국정부의 소수민족정책에 의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이 심화되면서 소수민족문제는 기존의 공존적 관계에서 점진적으로 경쟁적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사회의 변화는 사회적, 민족적 문제를 부각시켰고, 조선족사회에 또한 영향을 주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조선족사회의 정치적 대표성은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민족을 대표하는 엘리트 구조에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조선족 사회는 시장경제의 활성화로 인하여 경제성장을 가져왔지만, 이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이동은 민족공동체의 정체성에 위기를 가져왔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도·농간의 격차와 소득불평등, 계층간의 위화감이 갈수록 심각해져 기존 조선족내의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족 사회는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과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직면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I. 머리말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1978년 이후 등소평의 개혁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 중국사회구조의 재편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 현인 (조선족) 사회의 변화를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중국은 전체인구의 약 92%를 차지하는 한족(漢族)이외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크고 작은 56개의 소수민족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 중국은 소수민족과 한족이 ‘통일적 민족적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루고자 하며 개별민족들간의 ‘통일적 관계’를 보다 발전시켜 융합관계로 만들어 내는 것을 민족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민족정책은 그 동안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개혁개방이후 새로운 휴대정화를 내외적 환경변화로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지난 20여 년간 진행된 중국의 경제개혁은 중앙집권적 통제체제를 시장메카니즘으로 대체시켰다. 이전의 계획경제가 국가자원의 동원이나 배분에 있어 매우 비효율적이었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운영에 관한 주요 결정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과 지역단위의 하급 생산단위로 이양하고 또 물질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인민 개개인, 기층시민사회의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즉,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사적부분의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국가-시민사회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사회의 변화는 사회적·민족적 문제를 크게 부각시킨다. 즉 공존적 민족관계는 점진적으로 경쟁적 관계로 성격이 변화되고, 급속한 인구이동으로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으며, 시장경제의 활성화로 인해 전통적인 도덕관과 미풍양속이 무너지고 있다는 전단이다. 따라서 중국내의 민족문제는 민족관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조정하는 개혁정책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업화와 현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낙후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수민족지역은 균형있게 발전시키야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